강진 들녘에 쌀귀리가 따뜻한 햇살과 해풍을 맞고 자라고 있다. 6월 초부터는 쌀귀리 수확이 시작된다. 〈강진군 제공〉

명품 강진 쌀귀리 '황금'으로 물든다

250농가 900ha 재배…오트밀·선식·고추장 등 지난해 15억 매출

고소득 효자 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강진산 쌀귀리가 6월 초 수확을 앞두고 누렇게 익어 가고 있다.

강진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 품질의 쌀귀리가 생산되는 곳으로 현재 250농가, 900ha에서 쌀귀리를 재배 하고 있다. 다음달 초부터는 햇쌀귀리 수확이 시작된다.

강진군은 우수한 쌀귀리를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강진쌀귀리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 받았다.

올해 초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강진쌀귀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

강진쌀귀리 가공시설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제품 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강진쌀귀리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며,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당과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베난쓰라마이드 성분은 곡류 중 귀리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 치매예방효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쌀귀리는 혼밥용으로 쌀과 섞어 바로 씻어 밥을 지어먹으면 쫀득하며 톡톡 튀는 식감이 일품이다.

강진군은 건강 기능성이 높은 쌀귀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트밀, 선식, 고추장, 떡 등의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강진군은 쌀귀리 생육의 최적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강진쌀귀리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군수 후보자 교육 정책은?

장흥교육희망연대 등 학부모단체, 초청 토론회 열어

장흥지역 학부모 단체가 장흥군수 후보자들을 초청, 장흥교육 비전에 대한 정책 토론회〈사진〉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장흥학부모연합회와 장흥교육희망연대, 장흥마을교육공동체 등 3개 단체는 지난 16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교육청에서 장흥군수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흥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구축,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이동편의 제공, 학교급식비 지자체 지원방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 후보는 "'교육은 100년대계'과제라며 학부모, 교육당국, 지자체 3자 협력구축을 통해 단순한 지원을 띄워넘어 교육예산에 획기적으로 반영해 '교육군수'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무소속 정종순 후보는 "장흥군이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구 교도소에 장흥문화예술타운내에 청소년 그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사순문 후보는 "'청년이 살아야 장흥이 산다'는 각오로 장흥지역 10여개 공동체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윤정 장흥학부모연합회장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한 장흥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청년 일자리 만들려 샐러드 팔아요

담양 청출어람 샐러드카페 문 열어…자활사업 청년 운영

담양에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이 운영하는 샐러드 카페가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지난 17일 담양자활센터에서 청출어람 샐러드카페 개소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읍 객사8길 25번길에 위치한 청출어람 샐러드카페는 만 18세~39세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청출어람'이 운영을 맡았다.

카페에서는 새벽영농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연어·닭고기·리코타치즈·불고기 샐러드 4종과 다양한 차를 판매한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성과급과 향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으로 사용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출어람 샐러드카페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자활센터는 2003년 8월 설립 이후 새벽영농, 세상의모든주스, 굿크린케어, 이룸, 청출어람 샐러드카페 등 5개 사업단과 나눔인테리어, 담빛희망나르미, 유미의도시락 등 3개의 자활기업을 통해 소득창출과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군 '귀농·귀촌 준비 스탬프 투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농산물 무인판매장 등 12월까지

화순군이 지난 18일부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안정 정착을 돕는 '귀농·귀촌 준비 스탬프 투어' 운영을 시작했다.

귀농·귀촌 준비 스탬프 투어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군의 귀농·귀촌 정보 제공 기관을 방문, 필요한 정보를 얻고 스탬프를 받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화순군민과 농촌 지역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참가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기관 정보가 포함된 스탬프 리플릿을 받고 정보 제공 기관을 방문,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투어 장소는 ▲귀농·귀촌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농업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역량개발팀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미생물배양실 ▲농기계임대를 지원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귀농교육을 진행하는 귀농귀촌학교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귀농인 농산물 무인판매장 6곳이다.

스탬프를 5개 이상 획득하면, 여행용 조리도구 세트 등 다양한 홍보 꾸러미도 받을 수 있다. 투어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홍보 꾸러미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세 살 치아 여든 간다

장성군, 어린이 무료 불소 도포

장성군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9개소를 방문해 무료로 치아 불소도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부모 사전 동의를 거친 만 3세 이상 어린이 250여 명이다.

어린이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에 불소 막을 형성해 세균을 억제하고, 충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군은 불소도포와 함께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